

신성록 “타임크로싱 장르 어려웠지만 인생작 됐죠”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 작품이라 ‘카이로스’를 떠나보내기에 조금 슬픈 마음도 든다.”

지난 22일 종영한 MBC TV 월화극 ‘카이로스’에 출연한 배우 신성록은 29일 뉴스시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정말 인생작으로 남을 수 있을 만한 작품”이라며 애착을 드러냈다.

‘카이로스’는 어린 딸이 유괴당해 절망에 빠진 한 달 뒤의 남자 김서진(신성록 분)과 실종된 엄마를 찾아야 하는 한 달 전의 여자 한애리(이세영 분)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시간을 가로질러 고군분투하는 타임크로싱 스릴러 드라마다.

신성록은 과거와 미래의 김서진 모습을 1인 2역을 보는 듯 확연하게 다른 분위기로 그려내며 시청자들을 매혹 감탄하게 만들었다.

특히 극의 몰입도를 끌어올리는 디테일한 감정선과 탁월한 연기력을 뽐내며 안방극장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처음 이 작품을 선택하기 전 대본을 보는 순간 ‘이 작품 진짜 꼭 해야겠다. 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다. 정말 제가 배우 생활하면서 이런 캐릭터를 한 번 하고 싶다고 느꼈었다”며 “장르물을 한 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만난 작품이라 더더욱 애착이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단편적인 어떤 인물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 외에도 극 안에서의 여러

종영 ‘카이로스’... 딸 찾는 미래의 남자 ‘김서진’ 역 시간 가로질러 고군분투 “해보고 싶었던 캐릭터”

“앞으로 의사 역할·의학 드라마 해보고 싶어”

가치 상황, 과거와 미래,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입체적인 캐릭터로 그려낼 수 있었던 기회”라며 “이런 캐릭터를 접하는 것은 흔치 않기 때문에 정말 인생작으로 남을 수 있을 만한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기억에 남는 명장면으로는 7부 엔딩을 꼽았다. “다빈이의 인형 안에 있는 위치 추적기를 쫓아서 갔더니 그곳에 아내와 딸이 죽은 것이 아닌, 멀쩡히 살아있었고 서도균(안보현 분)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표정이 점차 변하는 순간 또 뒤에서 태구가 머리를 가격해 기절하는 엔딩, 그 장면이 서진이 입장에서 고난의 끝이지 않구나 싶다.”

작품이 정말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는 “어느 순간만 놓치면 작품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면서 계속 배우들끼리 자문을 구해가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토론을 하면서 찍을 정도로 어려운 작품이었다”고 토로했다.

함께 작품을 만든 감독과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방송우 감독이 아니었으면 저희 작품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을 것 같다”며 “다른 감독 작품도 많이 만나봤지만 박 감독의 유니크한 상상력은 저를 굉장히 놀라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토론의 여지를 주는 두루뭉술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닌 확신을 주는 디렉션을 줬다. 최고의 연출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 드라마 팬들이 좋아하는 연출 감독이 될 거라 생각한다. 함께 작업하며 행복했다.”

함께 호흡한 이세영에 대해서는 “6년 전 만났을 때는 아역에서 성인 연기자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나는 시기였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주연 배우로서 완벽히 성장해 어떤 도움 없이도 극을 이끌고 심지어 저 또한 기쁨을 정도도 어려운 작품이었다”고 말했다.

“동생으로서 기특하고 동료로서는 대단하고 배울 점이 많은 후배라고 생각한다. 6년 만에 만났는데도 너무

친근하기 때문에 언제 만나도 반갑고 기대가 된다.”

남규리도 “이번에 호흡을 처음 맞췄는데 메소드 연기를 한 것 같다”며 칭찬했다. 특히 “아이를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말을 많이 아끼고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우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반전 이미지를 전한 신구를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존경하는 선생님이다. 화를 갑자기 내는 장면에서는 깜짝 놀랄 정도로 넘치는 힘을 보여주는 등 굉장한 연기력을 보여줘 놀랐다”며 “물모텔”이라고 했다.

“별에서 온 그대”, ‘리턴’ 등 그동안 ‘셀’ 캐릭터를 연기해왔지만 “실제 성격은 전혀 선이 굵거나 느낌이 세진 않고 평범하다”고 했다.

“즐거울 때 즐거우려고 노력하고 농담도 좋아하는 편이다. ‘집사부일체’에서 보이는 모습이 저의 제 모습과 가깝지 않나 싶다.”

앞으로 의학 드라마를 해보고 싶다는 포부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한테 의학 정치 드라마도 좋고 의학 휴먼 드라마도 좋다”며 “의사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고 전했다.



또 다양한 모습,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계속하겠다.”

KBS, 보신각 타종 행사 대신 제야 음악회 개최

내일 오후 10시50분 생방송

KBS 1TV는 31일 오후 10시50분 생방송으로 제야음악회 ‘새날마중’을 연다.

보신각의 타종행사 대신 차분한 음악회로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한다.

1부 위로, 2부 희망을 콘셉트로 하는 이날 음악회엔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출연한다.

1부는 뮤지컬 배우 임태경과 소프라노 김순영의 ‘넬라 판타지아’를 시작으로 뮤지컬 배우 정선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송소희의 ‘사노라면’, 태평가, 트로트 가수 진성과 크로스오



버 그룹 컨템포디보의 ‘보릿고개’, 바리톤 길병민의 ‘아이 빌리브’ 등이 펼쳐진다.

2부는 국악인 남상일과 박애리의 ‘해뜰날’, 가수 서영은의 ‘꿈을 꾸다’,

소프라노 김순영의 ‘오! 대한민국’, 소프라노 박해상과 바리톤 길병민의 아리아 등이 이어진다. 마지막 곡은 컨템포디보의 ‘핸드 인 핸드(Hand in hand)’다.

방탄소년단·트와이스·세븐틴, 골든디스크어워즈 출연

내년 1월 9·10일 방송... 관객 없는 비대면 방식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최정상 K팝 아티스트들이 ‘골든디스크어워즈’에 출연한다.

29일 골든디스크어워즈 측에 따르면 내년 1월9일과 10일 열리는 ‘35회 골든디스크어워즈 with 큐라포क्स’에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세븐틴, NCT127, 갓세븐, 스트레이 키즈, 뉴이스트, 몬스타엑스, 오마이걸 등이 출연한다.

이들은 모두 분상 후보다. 갓세븐, NCT127, 스트레이 키즈, 뉴이스트, 몬스타엑스, 세븐틴은 음반 본

상 후보다. 오마이걸은 디지털 음원 분상 후보에 올랐다.

3년 연속 디지털 음원·음반 분상을 싹쓸이한 트와이스와 34회에서 골든디스크 역사상 최초로 디지털 음원·음반 대상을 동시에 석권한 방탄소년단은 이번에도 디지털 음원과 음반 부문 분상 후보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골든디스크어워즈 사무국은 “35회 골든디스크어워즈는 관객이 없는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진다. 가수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하면서 무대를 사전 녹화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며 “골든디스크어워즈에서 만난 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골든디스크어워즈’는 1986년 1회를 시작으로 35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오는 1월9일 디지털 음원 부문 시상식은 박소담·이승기가, 1월10일 음반 부문 시상식은 이다희·성시경이 MC를 맡는다. JTBC·JTBC2·JTBC4에서 방송된다.

뉴스

신동엽, 아내 선혜윤 PD와 ‘배달고파? 일단 시켜’

현주엽·박준형·이규한·서뉴 출연... 내년 1월 첫방



MBC가 대한민국의 배달 ‘찐’ 맛을 찾는 ‘배달고파? 일단 시켜’를 선보인다.

신동엽을 메인 MC로 현주엽, 박준형, 이규한, 서뉴 등이 출연한다. 29일 MBC에 따르면 신규 파일럿

에는 ‘배달고파? 일단 시켜!’는 최근 첫 녹화를 마쳤다. 멤버는 신동엽, 현주엽, ‘god’ 박준형, 이규한, ‘몬스타엑스’ 서뉴가 확정됐으며 신동엽 아내인 선혜윤 PD가 연출을 맡았다.

‘일단 시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배달의 시대’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배달 ‘찐’ 맛집을 찾아보는 버라이어티 예능이다.

다섯 멤버들은 전국 곳곳을 누비며 ‘찐’ 배달 맛집을 찾는다. 다양하고 특별한 배달 맛집들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배달 맛집들이 소개될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큰 변화를 맞이한 음식, 배달업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다. 1월 첫 방송 예정.

음주운전 적발 배우 배성우...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책임 통감...자숙하겠다”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에 대해 기소의견을 적용,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주 배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씨는 지난달 중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배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배씨는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다시는 이



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탄소년단 슈가, ‘어깨수술’ 2개월 만에 무대 복귀할 듯

빅히트 레이블즈, 합동 콘서트 출연 예고

어깨 수술 뒤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약 2개월 만에 공식 일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슈가는 28일 오후 네이버 브이 라이브에서 진행한 개인 오디오 생방송 ‘내가 눈사람이라니’에서 ‘2021 뉴 이어스 이브 라이브(2021 NEW YEAR’S EVE LIVE)’ 출연을 언급했다.

오는 3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뉴 이어스 이브 라이브’는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레이블즈의 합동 콘서트다.

슈가는 “(아직) 퍼포먼스는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 퍼포먼스 없는 것들(무대)은 하지 않을까”라며 “원팔로는 마이크를 (아직) 못 들어, 오른팔로 들 것 같다”고 했다.

지난 2012년 교통사고를 당한 슈가는 이듬해 어깨의 상완골 탈구 진단을 받았다.

어깨 통증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다, 작년 어깨 관절 주변 연골 파열을 뜻하는 좌측후방관절외순파열 진단을 전문의로부터 받았다.

그대로 뒹다가는 가수 활동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달 3일 좌측 어깨 부위의 파열된 관절

외순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슈가는 “보조기는 풀었다. 팔은 아직 90도로 올라가지 않는다. 재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가동 범위 내에서 서만 팔을 쓰며 여러 운동을 하는 중이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속도가 더디다”고 설명했다.

슈가는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달과 이달 열린 시상식 등 방탄소년단 공식 일정 대다수에 불참했다.

지난 25일 SBS TV ‘2020 가요대전’에서 방탄소년단이 출연할 당시 그의 빈자리는 눈사람이 대신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날 라이브 방송 타이틀도 ‘내가 눈사람이라니’라고 지었다.

신사동호랭이X유니버설뮤직, 글로벌 걸그룹 탄생 예고

히트 작곡가 신사동호랭이와 유니버설뮤직이 2021년 신인 걸그룹을 선보인다.

신사동호랭이 측 관계자는 29일 “신사동호랭이와 유니버설뮤직이 공동 제작한 신인 걸그룹이 내년 초 정식 데뷔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사동호랭이는 티아라 ‘몰리 폴리’, 에이핑크 ‘노노노·리멤버’, EXID ‘위아래·덜덜덜’, 모모랜드 ‘뽀뽀’ 등 많은 히트곡을 배출했다.

그동안 축적한 제작 노하우를 바

탕으로 새로운 K-POP 걸그룹 제작에 도전장을 던졌다.

특히 세계 최대 음반사 유니버설뮤직이 공동제작에 참여한 만큼, 실력뿐만 아니라 방대한 스케일까지 어우러진 글로벌 K-POP 걸그룹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